

“청소로 쓰는 성공신화 지켜봐 주세요”

2016 희망을 쓴다 4 가난 딛고 일어난 ‘청소박사 조합’ 5인

사별·부도·이혼 아픔 뒤 서구 자활센터서 만나 의기투합
성실 밀천 거래처 20곳으로 승승장구...1억3천만원 매출



13일 광주 서구 쌍촌동 청소박사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김미정·허미경·김명희·황인방씨가 청소도구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청소박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쓰는 청소도구는 이보다 훨씬 기능이 좋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약작같이 일했습니다. 이 악물고요. 반기만 한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곧 망하겠지 이런 말 안 들도록...”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건물 2층은 ‘청소박사’들의 아지트다. 준공건물 청소 전문 김명희(여·47·대표)씨, 학교·경찰서 청소 전문 허미경(여·44)씨, 바닥청소 전문 황인방(54)씨, 청소박사의 마스크트 박정희(여·51)씨, 그리고 조합의 살림꾼 김미정(여·51)씨.

이들의 거래처는 서구지역 경찰관서를 비롯한 20여 곳으로, 지난해에 1억3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청소 약품 구입비,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제하고 조합원 5명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월급은 대략 130만원 안팎이다.

청소라는 업무와 통장에 찍히는 급여만 보면 평범한 40~50대 청소 아줌마·아저씨지만 이들의 이력과 쏟아부은 노력을 보노라면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 정도다.

청소박사협동조합 김명희 대표를 비롯한 조합원 5명은 광주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 만났다. 사무실 행정업무와 거래처 관리를 맡고 있는 김미정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4명의 자녀를 키우는 허미경씨, 서울에서 조그만 의류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고 시댁이 있는 광주로 ‘아반도주’해 온 김명희씨, IMF때 투자 실패로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자녀 2명을 키운 황인방씨.

이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7년 가량을 자활센터에 소속돼 청소를 배워며 활동비 80만 원을 받고 생계를 꾸려오다가 지난 2013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정부 지원금에 기대어 주어진 일반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직접 업체를 설립하고 거래처를 찾아 나서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하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는 하늘을 찔렀지만 막상 청소할 곳이 없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쯤 서구를 기반으로 한 청소업체가 자신들의 거래처 하나를 하청으로 줬다.

“첫 일감은 운전조동학교였어요. 복도·화장실·창문틀·유리창 등 학생들이 청소하는 교실 빼곤 썩썩 청소했어요. 우리 거래처는 아니었지만 내 일처럼, 우리가 맡은 학교를 한 번 꼭 오셔서 봐야 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정성을 쏟다 보니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학교를 다녀간 학부모로부터 ‘무슨 학교가 이렇게 깨끗하냐’는 칭찬을 들은 운전조 동장이 인근의 치평초, 계수초 등을 소개해 준 것이다.

이후 첫 일감을 하청받던 청소업체는 조용히 문을 닫았지만, 청소박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금호지구대, 상무지구대, 농성지구대 등 거래처가 날로 늘어 지금은 조합원 5명은 물론 직원 3명을 더 고용했다. 사업이 안정되다 보니 ‘기초수급자 출신 청소박사’들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집안에 쓰레기를 몇 t씩 쌓아두고 사는 강박증을 가진 이웃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숙독해주고 청소하는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자활센터 출신 자활기업 20곳이 생기면 1~2개 빼곤 모두 망했어요. 복지혜택에 길든데다 자활교육 당시에도 ‘대충 시간만 보내고’ 활동비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금은 중단됐지만 우리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거예요”라고 말하는 청소박사들에게서 건장한 기운이 넘실거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42
해질 10:20 달 뜨기 22:20

미끄럼 주의

새벽과 아침 사이에 1~3cm의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눈온뒤غم	-2/6	보성	구름맑음	-4/5
목포	구름맑음	-1/5	순천	구름맑음	-2/6
여수	구름맑음	0/6	영광	눈온뒤غم	-3/5
나주	구름맑음	-5/6	진도	구름맑음	-1/6
완도	구름맑음	-1/6	주요	눈온뒤غم	-3/4
구례	눈온뒤غم	-4/5	군산	눈온뒤غم	-3/4
강진	구름맑음	-3/5	남원	눈온뒤غم	-5/4
해남	구름맑음	-3/6	축산도	구름맑음	1/6
장성	눈온뒤غم	-5/5			

바다 날씨

오전

풍향

파고(m)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해

서부

동부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전남 교사 채용 내년부터 인·적성 평가 강화

2017년부터 전남 신규 교사 채용 시험에서 인·적성 평가가 강화된다. 도서 희망 교사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의무 근무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전남교육정책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관·부서별 발전 계획을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고회에서 심층면접 강화 등을 포함한 ▲인성·역량 중심 교원 선발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원 승진·전보 인사 제도 확립 방안 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해 내년부터 심층 면접 과정에서 인·적성 평가 문항을 적용하는 한편, 면접 위임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도서 희망 교사’ 선발과 관련, 의무 근무기간(8년)을 7~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올 3월 채용되는 도서 희망 교사들부터는 근무 기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기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민이 직접 엮은 흥미진진 ‘우리마을 역사’

광주 북구, 중앙·매곡·석곡동 마을지 퍼내...역사·문화 집대성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광주학 생독립운동기념공원(광주 서구 누문동) 사거리에는 팔각지붕에 2층 규모의 ‘공복루’라는 누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복루는 광주의 관문 역할을 했던 누각으로 ‘명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묵는 곳’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그 자태가 웅장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광주읍성 철거와 함께 일제에 의해 헐렸다. 현재는 그 자리에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012년 건립한 ‘공복루 모형석’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북구 중앙동 주민들이 직접 쓴 마을지(마을 책자)에 소개돼 있다.

북구 중앙동, 매곡동, 석곡동 주민자치 위원회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인물, 그리고 미래를 담은 마을지를 각각 펴냈다.

‘세 동(누문동·북동·유동)이 하나 된 중앙동’, ‘매화향 가득한 매곡’, ‘석곡동 고살길 이야기’ 등 3권의 마을지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스토리 발굴단으로 참여해 1년간 자료 수집과 인터뷰, 원고작성 등을 거



쳐 만든 결과물이다.

매곡동 주민들은 ‘매화향 가득한 매곡’에 마을의 역사와 인물, 문화시설 등을 담았다. 특히 주민들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현재는 충효동에서 재배되고 있는 광주 대표 특산물 무등산수박의 원조 ‘푸랭이’

가 과거 매곡동에서 다량으로 재배됐다는 사실을 구전을 통해 확인하며, ‘푸랭이’ 역사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동이 하나 된 중앙동’에는 광주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던 과거, 현재 도심 공동화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마을발전 지표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석곡동 고살길 이야기’는 반딧불이로 유명한 ‘평촌마을’, 김덕령 장군이 잠든 ‘배재마을’, 분청사기의 주산지였던 ‘금곡마을’ 등 석곡동 16개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이야기로 풀어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도 공모를 통해 3개 동을 선정하는 등 북구 모든 동의 마을 책자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소방대원 하루 평균 8분마다 구급활동

광주지역 소방대원들은 8분에 한 번 꼴로 구급활동에, 51분에 한 번꼴로 구조활동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출동은 1만157건, 구급출동은 6만3198건으로, 구조된 인원은 3650명, 구급 이송된 환자는 4만7597명에 이른다.

전년보다 구조건수는 62건(0.6%), 인원은 455명(14.3%) 늘었고, 구급은 5127건(8.1%), 이송인원은 3332명(7.0%) 증가했다.

하루 평균 구조출동은 27.8건으로 51분마다 한 번꼴로 이뤄졌고, 구급은 178.1건으로 8분마다 출동했다.

구조 유형은 ▲발집 제거 2027건(20%) ▲문 개방 1490건(14.7%) ▲동물 구조 1204건(11.9%) 순으로 생활밀착형 구조활동이 많았다.

구급은 질병이 2만2326명(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부상 1만751명(22.5%) ▲교통사고 5950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청기 맞춤렌탈

- 대한보청기 -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청각장애 2~6급(고도난청장애) 장애인카드소지자에 한해
대한보청기 구입시 국가보조금(1,179,000원)지원 절차를 별도로 도와드립니다.

◆강원본사 02)248-5600 ◆충북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정(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맞춤렌탈 모델

01	맥소 프로 (개당)	월 렌탈료 40,000원	평생가입비 240,000원
02	맥소 스탭2 (개당)	월 렌탈료 48,000원	평생가입비 280,000원
03	맥소 크리스프2 (개당)	월 렌탈료 48,000원	평생가입비 280,000원
04	맥소 스코프4 (개당)	월 렌탈료 54,000원	평생가입비 340,000원

01 | 맞춤귀속형 한달 3-4만원

02 | 제반서비스 무료

03 | 무료 방문 홈 서비스

04 | 안심 손실 보상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